

불 붙은 '희섭打'

‘빅초이’ 최희섭(28·KIA·사진)이 완벽하게 부활했다. 지난달 12일 1군으로 복귀한 뒤 연일 장타수를 터트리며 있는 것. 2달여째 팔찌를 해매고 있는 KIA로선 최희섭의 물오른 방향이 유일한 희망이다.

지난달 31일 SK전서 역전 스타런포를 작렬했던 최희섭은 지난 1일에도 SK전에서 좌중간을 가르치는 2타점, 2루타를 터트리며 그 진가를 발휘했다. 이날 개인 성적은 5타석 3타수, 1안타, 2볼넷, 2타점.

7월 12일 넥글 부상에서 회복돼 1군에 올라온 최희섭은 1일 현재 16경기에서 타율 362(58타수, 21안타), 2홈런, 18타점을 기록 중이다. 1할대를 맴돌던 초반에 비해 놀라운 성적이다. 21안타 중 장타는 무려 9개나 되고 삼진은 단 7차례에 불과하다. 4사구도 7개나 얻었다.

1군 복귀 후 맹타...타율 0.362

장타율+출루율 1.004 특급타자

특히 눈에 띄는 기록은 OPS(On base Plus Slugging)다. OPS는 출루율(On base)과 장타율(Slugging)을 합산한 것으로, 출루율은 선구안을, 장타율은 파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OPS는 팀 공헌도 분석의 최고 지표가 되고 있다.

OPS는 대체로 8~9할이면 좋은 선수, 9할이 넘으면 대형타자, 그리고 10할이 넘으면 특급타자로 분류된다.

7월 12일 복귀한 최희섭의 OPS는 1.004에 이르는데, 1일 현재 국내 프로야구에서 OPS가 10할이 넘는 타자는 이대호(롯데·1.108), 제이콥 크루즈(한화·1.050), 양준혁(삼성·1.041), 클리프 브룸바(현대·1.028) 등 4명뿐이다.

최희섭이 이처럼 본인의 타격감 뿐만 아니라 팀 타선에도 공헌하고 있는 것은 홈런에 대한 마음을 비웠기 때문이다.

한국 프로야구 데뷔 초기 장타를 노리다 번번이 삼진으로 물러났던 최희섭은 2군으로 강등된 뒤 유인구를 많이 던지며 한국 프로야구의 성향을 파악하고 맞는 타격에 집중하고 있다.

김중모 KIA 타격 코치는 “최희섭에게 홈런 등 큰 것을 노리지 말라고 하고 있다. 장타를 의식하다보면 상대에게 허점을 보이고 자세가 흐트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희섭도 “그동안 투수들이 변화구로 승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단타위주로 공을 맞추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요즘은 오히려 투수들이 정면승부를 많이 해와 홈런이 나올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병현 역투



메이저 50승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이 올해초까지 뛰었던 친정팀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제구력 난조를 보이고 삼진 쇼를 펼치며 메이저리그 개인통산 50승을 달성했다.

김병현은 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돌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 5.1이닝 동안 삼진을 무려 10개나 속아내며 5안타, 7사사구(6볼넷), 2실점으로 막고 4-3 승리를 이끌었다.

이로써 김병현은 시즌 6승(5패)째를 올리며 1999년 에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후 8년 만에 통산 50승 고지를 밟았다.

10타점삼진은 종전 9개를 넘어선 김병현의 한 경기 신기록. 그러나 투구 수는 127개로 많았고 올 해 세 번째로 6볼넷 이상을 기록하는 컨트롤 난조를 개선되지 않았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4.63(종전 4.72)으로 좋아졌다.

김병현은 이날 친정팀을 상대로 출루율이 좋지 않았다.

1회 첫 타자 윌리 타베라스의 3루쪽 번트 안타에 허를 찔린 김병현은 도루까지 허용해 무사 2루에

콜로라도전 5.1이닝 10K

개인통산 1경기 최다 탈삼진

물렸고 마쓰이 가즈오에게 원바운드로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2루타를 맞아 먼저 1점을 내줬다.

김병현은 계속된 1사 2루에서 ‘천적’ 토드 헬튼에게 끔찍한 우중간 2루타를 맞아 2점째를 내줬다. 제구력 난조까지 겹쳐 몸 맞는 공 1개와 볼넷 1개를 내줘 2사 만루까지 물렸으나 콜로라도 시절 배터리로 호흡을 맞췄던 요르비 볼레바를 3루 땅볼로 처리하고 이닝을 마쳤다.

힘겹게 위기를 넘기자 플로리다 타선은 공수교대 후 1사 만루에서 조시 윌링햄이 2타점 적시타를 날려 2-2 동점을 만들며 김병현의 어깨를 가법해 했다.

김병현은 2회에 또 1사 1, 2루를 맞았지만 강타자 헬튼을 삼진으로 돌려 세우며 위기를 탈출했다.

3회에는 첫 타자 개러 앳킨스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브래드 호프와 트로이 톨로위츠키, 볼레바를 차례로 삼진 처리하는 등 4회 1사까지 네 타자 연속 삼진 퍼레이드를 펼쳤다.

김병현이 안정을 찾자 플로리다는 4회 맷 트레너의 1타점 적시타와 5회 미겔 카브레라의 1점 홈런으로 김병현의 승리요건을 만들어 줬다.

5회를 무실점으로 막은 김병현은 6회 들어 안타 1개와 볼넷으로 1사 1, 2루를 자초한 뒤 4-2로 앞선 레니엘 핀토로 교체됐고 핀토가 후속 타자 2명을 범타로 처리해 김병현의 실점은 늘지 않았다.

플로리다는 9회 1사 1, 3루에서 앳킨스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아 4-3까지 쫓겼지만 케빈 그레이가 2사 만루에서 볼레바를 삼진으로 잡아 승리를 지켰다. 상대 선발 포그는 5이닝 4실점(3자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카자흐스탄에 달미...조 2위 4강 진출



아시아 남자농구선수권

한국 남자농구가 카자흐스탄에 일격을 당하며 제24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5연승 뒤에 첫 패를 당했다.

한국은 2일 일본 도쿠시마의 아스티체육관에서 열린 8강리그 F조 3차전 카자흐스탄전에서 75-73으로 저 2승1패가 됐다.

그러나 한국은 조 2위로 4강에 올라 4일 E

조 1위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4쿼터들어 57-54로 역전에 성공한 한국은 경기종료 3분50초를 남기고 막심 보엘리코프에 2점을 허용해 65-67로 재역전 당했고, 1분57초 전에는 다시 보엘리코프에게 결정적인 3점슛을 얻어맞아 65-71까지 뒤졌다.

한국은 이후 김동우가 자유투 2개를 넣으며 따라붙었으나 53초를 남기고 김민수가 자유투 2개를 모두 놓쳐 추격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 3일(금)
- ▲PGA 리노 타호 호른 1R(07 : 30·SBS 스포츠)
 - ▲메이저리그<샌프란시스코~LA다저스>(11 : 00·Xports)
 - ▲봉황대기 고교야구 개막전(중앙고-부산공고)(13 : 00·KBS1·KBSN Sports)
 - ▲프로야구(SK-삼성)(17 : 30·KBSN Sports), <LG-두산>(18 : 20·SBS스포츠)
 - ▲일본 프로야구(야쿠르트~요미우리)(18 : 00·MBC ESPN)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 모집과정
 - ▶공인중개사 12개월~5회 시험일: 10월28일
 - ▶주택관리사 12개월~5회 시험일: 10월21일
 - ▶주택관리사 2차회계포함 주택관리사 10월21일
- 모집대상
 - ▶졸업후 1년 이내 취업이 예정된 분
 - ▶성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인 분 40세 이상인 분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분 단서: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7타사합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후 100~80% 환급
- 접 수
 - ▶수강필자: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1-컴퓨터교정-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강습서원 ☎224-4560, 232-1088

특보:세무공무원 3000명 모집, 합격의 절호의 기회!!

7.9급 공무원 대특강

일세무직 2700명 모집 (1200명 모집) (사상초우)

7.9급 일반 행정직 216명 10월 13일 시험 개강 8월 1일

남 9급 교육 행정직 000명 올해반기 시험 주야반모집

=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 222-4560

www.kimyoung.co.kr

그동안 정형출신 12만여명 합격

여름방학 편입 대특강

개강 8월 1일

올해도 역시! 거침없는 합격률!!

김영면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 227-8088

제1회 경찰청 공인자격 인증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실험

근거:자격기본법 제15조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에 의한 경찰청인증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시행

1. 시험일정: 2007년 10월 14일
2. 원서접수: 2007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3. 시험장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본부 (서울 중구 신성동 17가)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각 지·도 지부 교육홍보센터에서 배부 및 접수
5. 응시자격:
 -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이하
 - 학력: 대학 졸업
 - 6. 시험과목:
 - 1차시험: 교통법규, 교통사고조사, 교통사고처리, 차량운행
 - 2차시험: 교통사고조사분석서 작성 및 재판서부
 - 7.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시험방법: 시험문제 출제 시점시간 엄격기준
 - 1차시험: 4시간(당) 객관식 100문제(해당당 25문제)
 - 15분 총합 60점 이상(해당 16점 내란)
 - 2차시험: 주관식 5문제
 - 15분 총합 15점 이상(해당 5점 이상)
 - 8. 합격자 발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알람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무등고시와 함께라면 합격은 쉬워집니다.

○이런 분은 꼭 응시하세요!

- 교통관련업체 종사하시는 분
- 전문직(중개사, 세무사, 손해사정인) 등에 종사하시는 분
- 취업, 개업을 준비중인 남·녀, 주부
- 노후복지 및 사회 보장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분

강의 일정표	
평일반	월·수·금
주말반	토·일
개강 8월 11일	

★ 원서접수대행 : 8월 2일 ~ 31일까지 ★

※ 출제 위원급 교수진들의 최고의 강의로 최다합격자 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직접 방문하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 46년 전통의 “無等”은 “꼭” 합격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

www.mdgoal.co.kr ☎ 222-4560

www.kimyoung.co.kr ☎ 227-8088

www.kimyoung.co.kr ☎ 062-434-7858